

보도시점 2024. 8. 4.(일) 12:00 배포 2024. 8. 3.(토) 10:00

한국-싱가포르 재무당국간 경제·금융협력 강화

-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, 제9차 한-싱 고위급 경제정책대화 참석
-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, 아세안(ASEAN)+3 금융협력, 기후위기 대응 논의
- 외국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외환시장 개방 이후 동향 평가, 발전방안 논의

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.2.(금)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쉘(Kevin Shum)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(Deputy Secretary)와 제9차 한국-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.

동 회의는 양국 간 경제·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통로(채널)로, '08년부터 '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었으며 이후 중단되었다가 '22.11월 서울에서 재개되어, 올해 10년만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.

이번 회의는 ①최근 경제 동향·전망과 정책과제, ②아세안(ASEAN)+3* 역내 금융협력, ③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총 3개 분야(세션)로 구성되었다.

*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-East Asian Nations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**싱가포르**, 태국, 베트남) **10개국** 및 **한·일·중 3개국**

첫 번째 분야(세션)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국 의견을 교환하고,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.

두 번째 분야(세션)에서는 아세안+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*)의 실효성 제고 방안,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**)의 역량 강화 등 아세안+3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.

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: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총 2,400억불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으로, 우리나라 분담분 384억불(분담률 16%)

** ASEAN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: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, CMIM 운영지원 등 수행('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 → '16년 국제기구로 전환)

이어, 세 번째 분야(세션)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재무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였다.

이번 회의는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싱가포르와의 우호적 친선(파트너십)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양국은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, '25년 한국에서 제10차 한국-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.

한편, 최 관리관은 우리 외환 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(RFI*)으로 등록한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부터 정식 시행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이후 외환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과 같은 동향을 평가하고,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했다.

* **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**: 한국 외환시장 참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

마지막으로 최 관리관은 리 쿠큐칭(Li Kouqing)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) 소장을 만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)가 아세안+3 사무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논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곽소희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권혁률 (bamryul@korea.kr)

